

“한강 노벨상 수상, 현 시대 위선자들 각성 계기 되길”

市, 시청서 기념행사...300여명 자정 넘도록 시상식 보며 기쁨 나눠 AI동호 “다시살아날기회취감사”...모티브된문재학열사모눈물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시대적 배경과 유사한 지금의 현실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위선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 믿습니다.”

11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을 지켜본 이세훈(32)씨는 이 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스웨덴 현지 노벨상 시상식에 맞춰 전날 오후 8시부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특강과 1부 문학의 밤, 2부 한강의 시간(재즈, 극예술, 샌드아트 등) 등의 부대행사를 마련해 시상식 전 광주시민들이 한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강 작가에게 쓰는 축하편지에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무력과 강압으로 인해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자정 무렵부터 시상식이 진행되자 행사장에 모인 300여명의 눈과 귀가 일제히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의학상 후 문학상 차례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한강”을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5·18민주화운동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됐다는 이씨는 “44년 전 군홧발에 짓밟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으로 나섰던 시민들의 외침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한강 작가의 수상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위선자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상식 후 행사장 한쪽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 속 동호는 “몸이 없어도 눈을 뜨고 많은 것을 지켜볼 수 있다”며 “죽은



1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축하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의 혼은 육신이 아닌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머물기에 여러분의 기억이 곧 나의 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책을 펼치던 그 순간, 저는 늘 여러분 손길 곁에 있었다”며

“다시 살아날 기회를 준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동호의 모티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재학 열사로, 이날 행사에는 문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도 함께했다.

행사 인사말을 통해 한 작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김길자씨는 아들의 생전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붉은 눈시울로 눈물을 쏟아냈다.

한편 광주시에 앞서 광주 동구와 북구도 전날 오후 4시에 각각 ‘소년이 온다 낭독회’와 ‘북구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다. /주성학 기자

“민주주의·인권 가치 빛낸 한강에 감사”

오월 공법 3단체·기념재단 합동 축하 메시지

오월 단체·기법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다.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공공자 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줬을뿐 아니라 전세계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며 “이번 수상은 문화적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드높인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작가의 문학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그가 작품에 담은 진실과 정의의 메시지는 1980년 오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의 품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 우리에게 각별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안겨줬다”며 “특히 현재의 혼란한 계엄 정국 속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은 억압에 맞서는 용기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강렬히 부각시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한 작가가 밝힌 메시지에 대해서는 “5·18정신이 세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국제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기뻐했다.

끝으로 “한 작가의 성취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줬다”며 “앞으로 5·18 단체는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함께 더욱 단단

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철도 파업 철회...오늘부터 정상운영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노조 총파업 일주일 만에 극적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12일부터 광주·전남을 잇는 열차들도 순차적으로 정상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30여시간 동안 실무교섭을 벌여 임금인상과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관련 4조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성학 기자

‘허위사실 유포’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 등 고발

5·18재단-광주시...서울 한 출판사 대표도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과 과거거사정리위원장과 서울 한 출판사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광주시에 함께 이날 광

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진동 위원장은 두달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5·18과 북한의 관련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5·18 당시 계엄군으로

사위 진압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출판사 대표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여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5·18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리 “현행법상 5·18을 왜곡·편향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위반자들에게 대한 고발을 이어나가 이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주성학 기자

檢, ‘이중투표 유도’ 신정훈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의원은 지난 3월 1일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기고

일부 시민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등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신 의원은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고, 지지 호소 성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대 신문에서 검찰은 당시 신 의원이 포함돼 있었던 SNS단체 대화방에서 이중투표를 마쳤다는 ‘인증’ 메시지가 오갔다는 대목에서 그의 발언도 지지 성격의 목

적성이 인정된다고 피력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은 영향력이 큰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론조사에 (부정)응답하도록 유도했다”며 “나주시 선거구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 확정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신 의원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하게 된 지리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고 무의식중에 나온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동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6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